어찌 이런 봄날이 왔을까 침묵하는 봄에 피워낸 꽃

김현숙 열네 번째 개인전
가늘고 고운 붓질로 핀 꽃
코로나19가 바꾼 화면들
4호에서 100호까지 펼쳐

어찌 이런 봄날이 올까 싶었다. 봄이 어떤 계절인가. 언 땅을 뚫고 돋아난 초록싹들이 자라 온갖 빛깔의 꽃을 피워내는 날들이 아닌가. 손꼽아 때를 기다려 산으로 들로 꽃구경 떠나던 봄날이건만, 우리는 사람이 몰릴까 두려워 이 봄에 꽃밭을 갈아엎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질병이 바꿔놓은 세상이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는 행사나 모임들이 일제히 중단됐고 저마다 자기만의 생활 공간에서 감염의 공포를 벗어나려 애써왔다. 이 시기에 화가 김현숙은 붓을 들고 낯선 일상을 견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편으론 고독과 마주해야 하는 작업에는 최적의 시간이었다는 그가 이 시절에 창작한 작품들로 바깥 나들이에 나선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 봉개동(명림로 209) 아트인명도암에서 열네 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 전시에 붙여진 제목은 '화란춘성(花爛春城)-침묵하는 봄'이다. 5월 개인전을 일찍이 예정했지만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코로나19라는 질문이 하나 더 작가에게 던져졌고 그는 봄이되 봄이 아닌 현실을 빗대 그같은 이름을 지었다.

김현숙 작가에겐 흔히 '꽃의 화가'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이번 역시 화면 가득 꽃이다. 그러나 예전의 꽃이 아니다. 굵은 붓질보다 가늘고 고운 터치가 많아졌고 그러다보니 형태가 작아졌다. 그는 "작가정신 운운하며 고민했던 일들이 멈춤의 시간을 맞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세상의 전부 같던 것들이 별게 아니고 무심했던 소소한 것들이 귀하게 다가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작가가 맛깔나게 적어놓은 전시 소개글에 이런 문장도 보인다. "가두어놓은 몸과 마음의 무게를 색으로 훨훨 풀어내고 나니 온 천지가 꽃밭이 되었다."

김현숙의 '화란춘성(花爛春城)-침묵하는 봄' 출품작.

제주도립미술관장, 제주미술협회 회장을 지낸 작가가 3년 만에 펼치는 개인전으로 100호에서 4호까지 20여 점이 나온다. 문의 064)727-125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詩(시)로 읽는 4·3 (58)

섯알오름의 봄

이애자

이념의 리트머스에 산이 온통 붉더라네
적엽을 털어내던 섯알오름 등 굽은 해송
반사적 과민반응이 내게 일침을 놓네

사삼사삼 사상사상 말꼬리가 잡혔는지
희뜩 뒤집힌 눈알로 천계를 구르다
빈 하늘 손도장 찍고 위령탑에 걸린 낮달

푸르르 칠색 춤사위 불귀의 객 달래네
저 장끼 박수무당 목울대가 붓도록
비문에 파묻은 혼백 꺼-억 꺼-억 부르네

유채꽃 송이마다 부싯돌을 그으며
알뜨르 활주로에 유도등 켜는 햇살
사월의 탑승객처럼 학살터에도 봄이 드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을 체포 구금했다. 이때 제주지구 계엄당국에서도 820명의 주민을 검속했다. 당시 모슬포 경찰서 관내 한림·한경·대정·안덕 등지에서도 374명이 검속됐는데, 이들 중 149명을 대정읍 상모리 절간 고구마 창고에 수감하였다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새벽 4~5시경 집단학살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날 새벽 2시경 한림지서에 검속되었던 63명도 계엄당국에 의해 집단총살 당하였다. 섯알오름 학살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매장 구덩이도 두 개가 만들어졌다. 우선 학살 당일 소문을 들은 유족 300여명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학살현장에 모여들어 27구 정도의 유해를 구덩이 밖으로 인양하여 수습하던 중 군 당국의 무력저지 때문에 꺼내 놓은 시신마저 다시 구덩이에 놓은 채 수습을 포기해야 했다.

6년여가 지난 1956년 3월 30일 당시 한림지서에 수감되었다가 희생된 63구의 시신이 유족들에 의해 수습되어 한림면 금악리 공동장지에 안장했다. 이 소문을 들은 모슬포지서 수감 희생자 유족들이 1956년 4월 28일 시신수습을 시도했으나 또 다시 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하지만 유족들의 요구로 시신발굴허가를 받았고, 1956년 5월 18일 발굴을 통해 149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중 식별이 가능한 17구의 시신을 제외한 132구는 백조일손 묘역에 안장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삼각형 건물에 사진과 건축의 만남

아뜰리에11건축사무소
박현모·반치옥 공동전

건축과 사진이 만났다. 삼각형 모양의 땅에 들어선 인상적인 건축물인 아뜰리에11건축사사무소(제주시 연북로 582)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이 묻고 건축이 답하다'란 이름의 전시다.

이번 전시는 아뜰리에11 건축사사무소의 건축가 박현모와 사진가 반치옥의 공동전시로 기획됐다. 건물 1층과 지하에는 제주에 정착한 사진가인 반치옥 작가가 제주 돌을 소재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을 펼쳐놓고 있다. 박현모 건축사사무소는 마라도에 들어설 교회를 위한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섬이라는 지형과 좌표, 의미를 해석하고 단순화해 새로운 공간 안에 함축했다. 건축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고 마침내 하나의 건물로 완성되는지 살필 수 있다.

전시는 이달 15일까지.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주중에는 오전 11시30분과 오후 1시30분, 주말에는 오전 10시30분과 오후 4시30분에 찾으면 된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문의 064)725-1107.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교육박물관 25주년 전시

제주교육박물관(관장 김희운)이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에서 개관 25주년 특별전을 열고 있다.

'25년의 기억: 제주교육박물관'이란 이름을 단 특별전은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맞춰 지난달 2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 사반세기를 정리하는 전시로 교육박물관 문을 열다, 제주 교육자료의 보고, 박물관을 빛나게 하는 교육 등으로 짜여졌다. 전시는 7월 12일까지.

도박물관 기증자료 코너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이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주체험관에 기증자료 코너를 마련했다.

이 코너는 기증자의 뜻을 알리고 자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개관이 이뤄지면 소치 간찰, 솔박, 타자기 등 7점을 한달 가량 선보이고 이후 순차적으로 기증 자료를 공개한다. 최근 3년간 박물관에 기증된 고고민속 자료는 2017년 261점, 2018년 907점, 2019년 237점이다.

함께 영화 보고 대본 읽고

(사)제주문화포럼(원장 정예실)은 '영화인문학-영화 보고, 대본 읽고' 강좌를 개설한다.

이 강좌는 영화를 보고, 원문 대본을 함께 읽으며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삶과 사람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총 30강이 예정되어 있다. 첫 강좌에서 만날 영화는 '작은 아씨들'(2020)로 이달 16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 전농로 문화공간 제주아트에서 한영숙 제주대 강사의 진행으로 마련된다. 문의 064)722-6914.

달리도서관 싱고 작가 강좌

달리도서관이 5월 문화가 있는 날 강좌로 싱고(신미나) 작가와 함께하는 '안녕 해태, 안녕 달리'를 운영한다.

이달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좌는 웹툰과 시의 만남을 통해 시를 새롭게 읽는 방법을 들어본다. 싱고 작가는 시집 '싱고라고 불렀다', 시 에세이집 '시(詩)누이'를 냈다. 달리도서관은 제주시 신성로 12길 21-2 온누리D&P 건물 2층에 있다. 참가 신청 문의 064)702-0236.

제주여성영화제 '제주 씨네페미학교'

제주여민회가 9월 제주여성영화제를 앞두고 대중문화를 여성주의적인 시각과 감성으로 분석해보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5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제주 씨네페미학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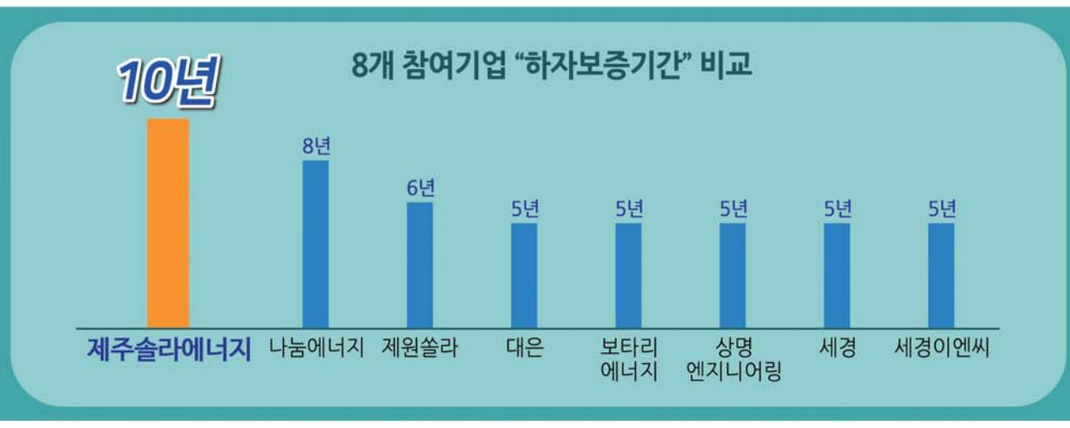
이번 아카데미는 강좌, 상영회, 스페셜토크로 꾸며진다. 강좌 주제는 '여성영화란 무엇인가'(조혜영 문화평론가), '변화하는 로맨스, 판타지와 페미니즘'(황미요조 영화평론가), '페미니스트 배우로 살아감에 대하여'(김꽃비 배우), '페미니즘으로 보는 영화 캐릭터 비평'(손희정 문화평론가), '젠더 비틀어보기'(김일란 감독)로 정해졌다. 7월 1일 오후 7시에는 메가박스 제주점에서 '얼굴, 그 맞은편'(감독 이선희, 2019,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마련되고 감독과의 대화도 예정되어 있다.

참가비는 4만원(회당 1만원). 참가자 모집은 이달 22일까지 온라인 링크(https://bit.ly/2020제주씨네페미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의 064)756-7261. 진선희기자

30년 쓰는 태양광, 10년 무상보증으로 안심 !!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
2020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접수 개시
(3kW 기준 : 보조금 251만4천원 / 자부담 249만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도내 최장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